

콜롬비아 <몸의 학교> 교육 구조 연구

탁 지 현*

목 차

Abstract	IV. <몸의 학교> 교육 체계
I. 서론	1. 교육철학
II. 무용교육과 자존감	2. 교육과정
III. <몸의 학교>의 교육내용	3. 교육방법
1. 설립배경	V. 결론
2. 교육의 방향	참고문헌
3. 교육내용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education of <el Colegio del Cuerpo> in Columbia

Tark, Jee-hyun·Ewha womans University

<el Colegio del Cuerpo> has transferred the human body as a integrated object by understanding it in aesthetic, eth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level. And they have achieved the progress of free will and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 and settlement of social life and peace loving mind through dance education. When we pay attention to the education of <el Colegio del Cuerpo> which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pursuit of happiness of life of columbian children, we can identify that

First, they have clearly shown the power of education and art based on a new educational philosophy called 'body integrate education' and well organized management system.

*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논문투고일: 2014. 10. 20. 심사일: 2014. 11. 21. 게재확정일: 2014. 12. 7.

Second, they offered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aim for the consolidation and awakening of sensitivity of students and citizens from all stratum.

Third, they systemized the integrative educational methodology based on the theme from the daily life and lead to learn the life through embodiment and practice.

Finally, their educational philosophy,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ology focalized on practice of artistic education that forms the self-esteem which demonstrate a affirmative power in the face of hopeless reality.

Today we are in the point of take-off stage for the culture advanced country. Fields of art education where children can take some time for introspection of their life have to be prepared more in each community. Furthermore if we absorb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methodology of <el Colegio del Cuerpo> creatively in our dance education curriculum, we can realize an integrative dance education in new terms for the children who are holding a lots of problems like exam hell, academic stress, outcast, easeless friendship, lookism, multiculturalism and internet violence which correspond to the social problems of columbia and can achieve development of human nature, self-esteem, mature civic awareness etc.

key words: dance education, self-esteem, <el Colegio del Cuerpo>

주요어: 무용교육, 자존감, 몸의 학교

I . 서론

2014년 5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6년간 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0년 조사 결과를 보면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6가지 항목(주관적 건강, 학교생활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 상황 적응, 외로움) 중에서도 삶의 만족도, 건강, 외로움 등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특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53.9%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정지은, 김민태, 2013: 47). 이는 교육 성취도 지수와 물질적 행복지수가 최상위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2014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최상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독일의 철학자 Kant, I.는 행복의 조건으로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안정적인 직업과 감정을 나눌 사

람이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과잉보호 또는 부모와의 대화단절, 불안한 교우관계 등으로 행복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부정적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극복해 나아갈 힘이 부족하다.

현재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부를 잘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즐기며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주어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인생에 있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자살 방지 전문가인 실패나 좌절을 넘어서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데(정지은, 김민태, 2013: 24), 이러한 힘의 열쇠가 바로 ‘자존감’이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은 아이가 실패를 겪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심지가 되며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경험들로 이루어진 삶에서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을 조종하는 역할을 자존감이 한다. 그리고 예술교육이 이러한 자존감 형성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 무용교육이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송난영, 2001; 황성우, 2008; 배지수, 2012; 방화미, 2013) 입증된바 있으며, 2013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다각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주체성, 사회성, 자존감 등 다방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재은, 2013: x vii). 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현장 중에서도 무용교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확립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 콜롬비아 <몸의 학교>는 인성 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이 옹호되고 있는 현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분석, 논의의 가치를 가지며, 주지교육의 뒷전으로 물러나있는 우리나라 예술교육에 수많은 담론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약 1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며 이 시대 교육 혁신을 꾀하고 있는 <몸의 학교>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용교육으로써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해준 대표적 사례로 콜롬비아 <몸의 학교> 교육을 분석,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자존감의 개념을 이해하고 무용교육과 자존감의 관계를 탐색하며, 콜롬비아 <몸의 학교>의 설립배경 및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등을 분석하여, 콜롬비아 아이들의 삶을 죽음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 교육적 논점들을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II .무용교육과 자존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조세핀 김(2014a: 50)은 “자존감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으로서, 자신이 다른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가치(self-worthiness)’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confidence)’,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정의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장문기, 2009: 7). 또한 이영애 박사는 “자기가치감, 유능감, 자신에 대한 호감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며, 캐나다의 교육심리학자인 Duclos, G.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밝히고 있다(정지은, 김민태, 2013: 20).

Erikson, E.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성격에 더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존감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사회 문화권의 요구 간의 접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 총 여덟 단계로 발달이 진행된다고 보았는데, 그 중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자존감 형성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Erikson, E.의 자존감 형성 단계 및 주요 특징

연령	발달 과업	바람직한 결과(덕목)	주요 사회적 관계	주요 특징
0~18개월	신뢰 vs 불신	신뢰, 희망	어머니 (양육자)	- 일관성 있는 양육자의 사랑으로 신뢰감을 형성하며 애착관계 높일수록 자존감 형성 - 양육자의 거부적 태도는 불신감 발달시킴
2~4세	자율성 vs 수치심	의지	부모	- 신체적 기술의 발달을 격려하면 자율성 습득, 성취감과 만족감을 통해 자존감 향상 - 신체적 기술의 미숙에 대해 지적, 무시하거나 과잉보호하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갖고 수치심, 무기력으로 연결
5~7세	주도성 vs 죄책감	목적, 의도	가족	- 탐색의 자유를 허용하고 아동의 질문에 충실히 답해줄 때 주도성, 리더십 발달 -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간섭하고, 질문을 무시하거나 불성실하게 대답할 시 죄책감 형성

연령	발달 과업	바람직한 결과(덕목)	주요 사회적 관계	주요 특징
8~13세	근면성 vs 열등감	유능감	이웃,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것을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성취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근면성 발달 - 성취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결과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 열등감 형성
14~20세	자아 정체성 vs 역할 혼미	충실성	또래집단, 리더십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정체감을 발달 - 신체적 불안감, 성역할과 직업선택의 불안정은 역할혼미 초래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대체로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아동기에 성숙된다고 보며(정지은, 김민태, 2013: 226), 5~8세 사이에 자존감이 보다 뚜렷하게 자리 잡지만 이후 노력과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자존감 완성의 결정적인 시기는 있지만, 그 시기와 정도는 외부자극이나 스트레스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기의 자존감은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8세 이후, 즉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자존감이 학교의 키워드가 되어야 하며 학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 시기는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경험하게 되는 시기인데, 만약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고, 이것은 바로 자존감 저하로 연결된다. 가정을 떠나 새로 배우는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여부,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 등에 따라 자존감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감정기복이 심해져 자존감의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부모에 대한 반항심, 이성 친구에 대한 호기심과 갈등, 자신의 신체 혹은 외모에 대한 불만, 학습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존감에 타격을 입기 쉽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존감을 뺏기고 공격당하는 상황을 예방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부조리와 병리현상 등을 해결,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제도적, 교육적 개선 및 쇄신 등이 필요하겠지만 자존감 형성과 같은 개인적 의식형성과 행동수준에서 보면 예술교육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예술은 개인적·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 집단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며, 특히 무용예술은 삶을

형성하는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치유할 뿐 아니라, 넓게는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무용은 지금 창작과 감상의 대응적 이분법 대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양면성의 측면에서 언급되면서 교육의 영역에서 수신(修身 자기인식, 자기존감 등)의 기능이 부각되었다... 개별적 체험에 의한 자기표현 기술로 만들어지는 무용 창작 과정이 체험이고, 그러한 체험이 자기완성(마음 도야, 수신)의 무용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용이 구현하는 의미가 무용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회와 역사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합적 안목을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에 있을 때이다(한혜리, 2014: 45-47)

무용교육과 자존감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송난영(2001: 48)은 무용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배지수(2012: 55)는 무용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긍정적 자기 인식을 가진다고 했다. 또한 방화미(2013: 45)는 초등학생의 무용교육 참여가 자기효능감 및 자기존중감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분석 결과를 보면 무용교육이 학생들의 자기 확신, 사회성 향상, 진로선택, 자기표현 능력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 결과를 보면 잠재적 소질 발견으로 인한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 타인과의 관계성 향상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학교수업에 비해 창의적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의 감수성이 증가하고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여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결국 학교교육을 넘어서 아이들의 참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됨을 확인했다(박재은, 2013: 246).

조세핀 김(2014b: 60-68)은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과 신체, 학업, 일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고,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견디는 힘이 강하고, 새로운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여유가 있다고 한다.

반면 발달심리학자 Donnellan, M.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 비해 청소년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 보인다고 밝혔다(조세핀 김, 2014a: 28). 특히 사춘기를 겪는 11~13세 나이에 더욱 공격성이 심하게 나타나며,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초래할 문제들의 복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서 교사는 자아정체성과 감정과 신체발달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는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정신적, 감정적 혼란을 겪고 이것이 신체로 까지 전달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새로운 과제나 난관이 주어졌을 때 취하는 대응 방식과 행동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매순간 새로운 과제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는 삶, 학력·성적 지상주의가 판치는 사회 속에서 자존감의 의미와 그것이 개인에게 끼칠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클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실현이 현시대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몸의 학교> 교육내용

1. 설립배경

콜롬비아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는 1997년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Cartegena de indias에서 무용수이자 안무가, 교육자인 콜롬비아 출신 알바로 레스트레포(Alvaro Restrepo)와 프랑스 출신 마리 프랑스 드리유방Marie France Delieuvain이 끊임없는 내전과 불평등, 빈곤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로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꾸릴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신체교육법 진행을 위해 설립되었다. Restrepo, A.는 콜롬비아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인간의 몸을 일회용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윤리적 위기를 낳았다고 보고, 인간의 몸을 접근하는 새로운 윤리로서 ‘통합신체교육’이라는 교육 철학을 주장했다. 통합신체교육은 “인간의 몸은 인간 조건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며 인간의 표현활동의 중추이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기본 사상으로 한다(박정훈, 2008: 11).

<몸의 학교>는 참신한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을 제시하며 공교육과 예술교육을 혁신하고 있는 대안학교로서 교육국(formation), 창작국(creation), 전파(diffusion) 및 감수성(sensitivity) 계발국, 조사(investigation) 및 자료수집국(documentation)의 4국 체제로 역할을 수행하며, ‘내 몸, 내 집 my body, my home’을 건강히 발전시키기 위해 예술 뿐 아니라

수학, 기술, 철학, 영어, 사회, 마약, 성문제 등 전반적 교육을 위한 학문의 장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김재은, 2014: 33). 또한 ‘다양한 삶의 기능 제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사회 통합, 예술을 통한 새로운 교육모델의 개발, 국제적 예술가 양성’을 취지로 내걸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무용이라는 또 다른 형식의 언어를 통해 인간 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 표현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약 15년간의 활동을 통해 약 8,100여명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수로 성장한 아이들로 구성된 <몸의 학교> 무용단(Compañía del Cuerpo de Indias)은 라틴 아메리카,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공연을 펼치며 국제적 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몸의 학교>는 콜롬비아 문화부, 카르타헤나 시, 교육지구 사무국(Education District Secretariat), Endesa/Emgesa 재단, 콜롬비아 수도협회(Asociación Metrópoli Colombia), Fundación Carlos y Sonia Haime 등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카르타헤나 시로부터 지원받은 4헥타르의 부지에 스페인의 지원금으로 그들의 창조와 혁신의 실험실이 될 문화 센터(cultural center)를 건립 중에 있다. 이 건물은 콜롬비아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성인까지 치료의 의미로 춤을 교육 받고, 예술·인문 전반의 교육도 책임 질 곳으로 계획되어 있다(김예림, 2014: 55).

2. 교육의 방향

<몸의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춤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Dance)’과 ‘춤을 통한 교육(Education with Dance)’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예술가 시민을 양성하는 과정, 후자는 예술적 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창립 초기에는 예술가 시민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점차 예술적 시민 양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을 <몸의 학교>의 고유한 사회적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박정훈, 2008: 12). 초기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는 방과 후 학교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체계를 갖추고 <몸의 학교> 교육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1) 춤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Dance)

국제적, 전문적인 무용수, 안무가,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재능 계층(Talent Stratum)’이라 불리는 통합 전략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문화, 국적, 출신, 경제적 배경 등을 가진 학생들을 선출하며, 더욱 평화롭고 공평한 사회 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진 시민 교육에 공헌하고자 무용에 소질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한다(<http://elcolegiodelcuerpo.org/en/>).

① 전문성 첨가 그룹(Professional Insertion Group)

‘춤에서의 동시대 연구(Contemporary Studies in Dance)’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의 학교> 교육방법론에 기초하여 현대무용의 창작, 안무, 해석, 교육학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예술적·인문학적 세미나를 통해 무용수들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이 과정의 학생들은 ‘재능 계층’의 첫 번째 사례로 대표되는데, 학생의 반은 10년 동안 <몸의 학교>에서 교육받기 위해 장학금을 받은 사회 취약계층의 아프리카계 또는 혼혈 아이들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반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몸의 학교>에 자비로 참여한 다양한 도시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춤에서의 동시대 연구(Contemporary Studies in Dance)

<몸의 학교>의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르(Contemporary, Classical, Traditional, Folk, Brake, Hip-hop, Urban 등)의 무용 능력을 강화,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 세계의 18~23세의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해석, 안무, 공연을 다루는 ‘몸과 창조(Body and Creation)’, 음악, 사진, 영상, 조형미술, 예술사 등을 다루는 ‘학제간 몸(Interdisciplinary Body)’, 교육학 등을 다루는 ‘몸과 사회(Body and Society)’라는 세 개의 주제를 통해 2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며, 졸업 시 Técnico Laboral en Interpretación en Danza라는 학위를 수여한다. 학생들은 훈련을 통해 다양한 컨템포러리 댄스 테크닉과 안무 능력을 습득하며, <몸의 학교> 무용단의 전문무용수들이 협업하여 예술적, 교육학적 책임을 보완한다.

③ 예술 고등학교 프로그램(Artistic High School Program)

미래 전문 무용수가 되길 희망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재능, 소질, 흥미 등에 의해 발탁되며, 이 과정을 졸업하면 ‘춤에서의 동시대 연구(Contemporary Studies in Dance)’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방과 후 과정으로 6년 동안 음악, 사진, 조형예술, 컨템포러리 댄스, 즉흥워크숍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콜롬비아 문화부와 교육지구 사무국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춤을 통한 교육(Education with Dance)

기본적 목표는 인간 몸의 행복(well being)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시민에게 감수성 계발과 몸의 창조, 집중,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후의 목표는 모든 종류의 폭력, 약물 중독, 영양실조, 학교 유기, 국가 무력분쟁 강제 연루, 성적학대 및 착취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빈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몸의 학교>는 2007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카르타헤나 소외지역 18개 국·공립학교 1,2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 예술교육 ‘프로젝트 마(MA, 間):내 몸, 내 집¹⁾’을 진행하였다. 3년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은행(WB)의 일본사회발전기금(JSDF) 중 95만 달러를 지원받아 화제가 되었고, 모든 수업과 워크숍에 참가한 아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한 교사와 부모들의 호응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2010년 380명, 2011년 240명의 아이들이 재정적 지원 아래 교육을 받아 ‘춤 통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몸의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7개의 댄스 스튜디오를 새로 지었고, 이곳에서 18개 학교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으며, 2011년 ‘프로젝트 마’에 참여한 학생 240명 중 60명이 그들의 흥미, 재능, 적성 등에 의해 발탁되어 ‘춤을 위한 교육’의 예술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지속적 교육을 받게 되었다.

우리 프로그램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답습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술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온전한 인성 교육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리고 몸의 학교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란 판단 하에 공교육 시스템과의 호환을 고려하게 되었다 (<http://www.arte365.kr/?p=4202>, Restrepo, A.의 인터뷰 중).

민관과 공기관이 서로 신뢰하고 보완의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마:내 몸, 내 집’ 프로그램은 몸을 발견케 하는 신체 훈련, 예술 언어를 활용한 훈련, 신체 존중교육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자세한 교육방법론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교육내용

2008년 실시된 ‘프로젝트 마: 내 몸, 내 집’을 위해 세계은행에 제출한 「몸의 학교 間:내 몸 내 집 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가장 최신판 <몸의 학교> 교육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다(박정훈, 2008: 14). 이것은 ‘7대 주제별 모듈과 3대 방법론적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대 주제는 <몸의 학교>가 선정한 고유한 교육 과목으로 볼 수 있고, 3대 축은 7대 주제 전체에 적용하는 교육방식을 의미한다. 즉, ‘신체훈련(다양한 신체기술), 예술언어를 활용

1) 間자를 일본어로 소리 내어 부를 때 ‘마(MA)’라고 부른다. 사람(人)과 사람(人) 사이(間)를 일컬어 우리는 인간(人間)이라 하며 이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해 질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마’를 통해 인간과의 연결과 만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박용준 외, 2008: 206).

한 훈련(다양한 예술), 신체 관리(신체 존중교육)'라는 세 가지 축을 '해부학/생리학, 시민형성, 폭력, 섹슈얼리티, 영양, 중독, 환경' 등 7가지 주제에 적용함으로써 주제별 모듈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년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각 주제별 모듈은 몸의 학교 교육 철학인 '통합신체교육'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7가지의 교육 주제는 콜롬비아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주제들로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상 벌어지는 일, 콜롬비아가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배움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세상을 다르게 접근하고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법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무용은 여성의 전유물이며 '살사와 같은 라틴댄스'라고 인식하고 있는 콜롬비아 어린이들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우선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주고, 자신의 실존을 나타내는 몸이 주위의 많은 위험 요소들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몸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몸의 학교> 교육방법론은 학문과 예술, 신체 훈련이 인간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교육방법론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몸의 학교> 교육방법론²⁾

	주제	모듈	방법론적축	교육 내용
1	해부학	몸의 내부/외부	신체훈련	몸을 통해 표현하기, 창조하기, 자기 자신 및 타자와 소통하기
			예술언어	조각, 건축 장르를 통해 예술사가 보여주는 인간 몸 이해하기
			신체관리	해부학 및 생리학을 통해 몸 내부 풍경과 기능, 몸 내외부의 관계 배우기
2	시민형성	개인 몸 /사회 몸	신체훈련	사회를 하나의 몸으로 간주하여 자기 몸과 타자의 몸의 관계 이해하기, 신체와 공간의 상호관계 이해하기
			예술언어	문학을 통해 자기에서 타자(궁극적으로 모두)로 어떻게 확장해가는지 배우기
			신체관리	각 개인의 정체성, 권리, 가치관에 대해 배우기
3	폭력	가족 몸 /평화 몸	신체훈련	신체조작 연습을 통해 몸이 폭력을 변화시켜 평화를 만드는 법 이해하기
			예술언어	음악과 타악 훈련을 통해 세기, 의도와 표현, 침묵과 청위, 두드리기와 공명하기, 충격, 메아리, 리듬과 강세 등 배우기
			신체관리	폭력의 여러 형태 파악하기, 가족이 평화 건설에 기여하는 방법 배우기

2) 박정훈(2008: 15-17. 참조)

	주제	모듈	방법론적축	교육 내용
4	성정체성	출발지 몸 /목적지 몸	신체훈련	접촉을 타인과 만나는 '교량'으로 이해하기, 인간의 몸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존재라는 것 이해하기
			예술언어	영화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가 또한 자기와의 관계라는 것 이해하기
			신체관리	색수열리타와 삶의 관계, 보호와 자유의 관계, 행위와 결과의 관계, 자신의 몸 내부와 타자 몸 내부 관계 이해하기
5	영양	균형의 몸 /건강한 몸	신체훈련	균형을 물리학적 운동법칙으로 이해하기: 자극, 부유, 정적, 에너지, 힘, 유동성
			예술언어	회화를 통해 예술사 속의 인간 몸과 대표적 미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인간 몸의 다양한 상태를 배우고 자신의 몸 직접 그리기
			신체관리	영양과 건강 사이의 균형 이해하기
6	중독	면역력 있는 몸 /자유로운 몸	신체훈련	리듬과 황홀의 특성을 통해 그것들이 몸 상태 및 몸무게와 맺는 관계 등 배우기
			예술언어	연극을 통해 중독현상과 관계있는 상상적 상황에서 살게 될 가능성으로 이해 확장하기
			신체관리	자기 몸을 관리하고 중독으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해야 하는 이유 배우기, 스스로 만족하는 데는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배우기
7	환경	거주지 몸	신체훈련	호흡과 리듬을 훈련하면서 몸과 환경의 관계 배우기
			예술언어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인간의 몸과 자연 환경, 학교 환경, 가정 환경, 마을 환경의 관계 답아보기
			신체관리	생태학이 인류에게 중요한 이유를 배우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법 배우기

IV. <몸의 학교> 교육 체제

1. 교육철학

<몸의 학교>는 '통합신체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철학을 제시하며 예술교육의 고유한 힘을 확신하였고, 약 15년간의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예술교육의 힘을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윤리적으로 무너지가는 '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기본으로 한 '통합신체교육' 철학은 인간의 몸을 통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예술교육과 결합함으로써 점차 실험적 교육으로 발전시켰다. 그들이 활동분야로 제시한 4국(교육국, 창작국, 전파 및 감수성 계발국, 조사 및 자료수집국) 체제 또한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통합신체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철학 실현을 위한 실험적, 혁신적, 탐구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들이 이루고자 한 목표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문제 상황에 직면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인거죠. 우리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이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박용준 외, 2008: 196, Restrepo, A.의 인터뷰 중)

사회와 제도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망각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존 상실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몸의 학교>는 통합신체교육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존재의 그릇이자 소통의 도구, 존재의 표현이자 증거인 몸을 이해하고, 춤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며,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서 희망, 용기, 자존감, 높은 가치의식을 길러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당당하게 존재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고 치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2. 교육과정

<몸의 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콜롬비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적, 예술적 방법을 택하였으며,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혁신적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공존에 의한 다양한 개성이 춤에 반영되는 것을 추구했다.

특히 ‘춤을 통한 교육’ 과정을 “콜롬비아 교육에 대한 몸의 학교 기여(박정훈, 2008: 12)”라 평가할 만큼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계층의 청소년과 시민들의 통합 및 감수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몸의 학교>의 고유한 사회적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 <몸의 학교>는 공교육에 배제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예술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온전한 인성교육에 이를 수 있다는 신념과 학교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공교육 시스템과의 호환형태 ‘춤을 통한 교육’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콜롬비아 학생들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것은 소수의 탁월한 예술가를 배출하는 예술교육이 아닌 일반 시민 다수의 삶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예술이 삶과 사회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의 산물인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존엄을 잃지 않으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몸의 움직임을 배움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존엄을 가슴깊이 새기는 것, 가난과 폭력 속에서도 결코 꿈을 잃지 않는 것.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기술(the art of living)이야말로 그들의 삶에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박용준 외, 2008: 207, Restrepo, A.의 인터뷰 중).

그들은 “예술이 공동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공동체 성원 모두가 그 문제를 민감한 주제로 여기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박정훈, 2008: 19)”는 신념을 가지고 전통적인 공교육을 혁신하는 예술교육을 실천한 것이다.

3. 교육 방법

<몸의 학교> 교육 방법론을 살펴보면 삶의 일상적인 주제에서 교육의 테마를 뽑아내 예술 학문과 신체 훈련의 통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해부학/생리학, 시민형성, 폭력, 섹슈얼리티, 영양, 중독, 환경이라는 7가지 주제는 콜롬비아 아이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로서, 아이들은 이러한 주제를 매개로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을 익히고 무용의 기술습득이 아닌 창작을 통한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다양한 예술 학문과 신체훈련 과정으로 7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사고함으로써 단순한 지식습득이 아닌 체화와 실천이라는 배움 본연의 과정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주제인 ‘성정체성’에 대해 교육할 때 무용, 요가, 무술 등을 활용한 신체 훈련으로 신체의 접촉과 몸을 통해 변화되는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도록 돕고, 영화와 같은 예술매체를 통해 에로티시즘과 아프로디시아(포르노그래피)-몸의 아름다움과 학대-에 대한 차이를 인식시킨다. 이와 함께 건강한 성과 성병에 대한 컨퍼런스를 함께 진행해서 어린이들이 복합적인 사고, 그리고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http://www.arte365.kr/?p=4202>, Restrepo, A.의 인터뷰 중).

이처럼 콜롬비아의 아이들은 철학적, 인문학적, 정치적, 사회적 개념이자 그들의 유일한 표현 수단인 ‘몸’을 통해 자신의 삶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삶이 닳긴 그릇과도 같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인식, 사고, 분석, 이해, 표현함으로써 자신감과 더불어 자존감을 얻게 되며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몸의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유한 감수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고 자기 삶과 일상적 경험의 진정한 책임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세상에 귀를 여는 법을 배우고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우기 바란다. (<몸의 학교 間:내 몸 내 집 사업 최종 보고서> 중에서; 박정훈, 2008: 17 재인용)

이처럼 <몸의 학교>는 몸을 매개로한 통합적, 체계적인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등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무용교육 실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몸의 학교> 아이들은 “무용을 통해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설득하여 행복을 되찾고,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의 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불행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는 법을 배웠다(박용준 외, 2008: 206)”고 말한다. 또한 “내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잊어요. 그래서 가끔은 예술이 빵보다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춤을 통해 꿈을 가지게 되었거든요”라고 고백하는 아이도 있다(<http://www.youtube.com/watch?v=ZKEOjjikWco>). 이것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용예술의 힘을 확인시킨 훌륭한 예라 할 수 있다.

V. 결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은 입시위주교육, 학력지상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자신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자존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예술교육이 학교 교육의 전면에 놓여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야 할 때이다.

콜롬비아 <몸의 학교>는 미학적, 윤리적, 생물학적, 환경적 관점에서 몸을 파악함으로써 인간 몸을 통합적 관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무용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의 자유의지 발전, 학업수행, 사회생활, 평화 문화 정착 등의 영역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추 역할을 한

<몸의 학교> 교육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첫째, ‘신체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철학과 체계적인 운용체제를 바탕으로 예술교육의 고유한 힘, 그리고 그 힘을 적절히 활용할 때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고,

둘째, 모든 계층의 청소년과 시민들의 통합 및 감수성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였으며,

셋째, 삶의 일상적인 주제에서 교육의 테마를 뽑아내 예술 학문과 신체 훈련의 통합적 교육방법론을 운영함으로써 체화와 실천의 과정을 통해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등 모든 조건들이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당당하게 존재하게 됨으로써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술교육 실천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선진국을 넘어서 미래의 문화선진국을 위해 도약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개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을 함양시킬 예술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현재 예술강사 파견제도를 비롯해 예술꽃 씨앗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기능 위주의 무용교육 또는 학교성적의 보완적 역할의 무용교육이 아닌 진정한 예술교육으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예술교육 현장이 지역사회 곳곳에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몸의 학교> 교육 철학 및 방법론을 우리나라 무용교육 과정에 창조적으로 흡수한다면 입시지옥, 학업 스트레스, 왕따, 불안한 교우관계, 외모지상주의, 다문화, 인터넷 폭력 등 콜롬비아의 사회적 문제와 상응하는 삶의 문제들을 안고 가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존엄성과 전인적 인간성 회복,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통합적 무용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예림(2014), 무용가 알바로 레스트레뵤-콜롬비아 ‘몸의 학교’ 설립자, **아트홀릭 11·12월호**, 53-55.
- 김재은(2014), **예술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교육과학사.
- 박용준 외(2008), **꿈을 살다**, 공리출판.
- 박정훈(2008), “서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예술학교 창립을 위하여, 콜롬비아 몸의 학교 사례”,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2008-05**.
- 방화미(2013), “초등학생의 무용교육이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지수(2012), “방과 후 무용활동의 미적경험을 통한 여중생의 신체상 인식과 자존감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송난영(2001), “무용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문기(2009), “몸프로젝트 학습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2학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지은, 김민태(2013), **아이의 자존감**, 지식채널.
- 조세핀 김(2014a), **우리아이 자존감의 비밀**, 서울문화사.
- _____ (2014b), **교실 속 자존감**, 비전과 리더십.
- 박재은(2013),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혜리(2014), “예술 통합의 구조와 체험으로서의 무용교육”, 2014. 6. 28. 경성대학교 프레지던트홀, **21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41-47, 한국무용교육학회.
- 황성우(2008),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http://elcolegiodelcuerpo.org/en/> <몸의 학교> 홈페이지.
- <http://www.arte365.kr/?p=4202> 조정윤(2011), “민·관이 만들어낸 상상의 작품 ‘프로젝트 마’”
- <http://www.youtube.com/watch?v=ZKEOjjikWco> 2009. 7. 27. “지식채널e 몸의 학교”